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9. 4.(금) 07:00 ~ 2026. 9. 6.(일) 22:00
- 상담건수: 1,324건

II. 주요의견 내용

○ 출연자 호평(220명)

-프로그램명 : 「살림하는 남자들」

-방송일시 : 2026. 9. 5.(토) 2TV (21:30-22:50)

박서진 씨가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노인 분장을 하고 하루를 체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부모님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이 떠올랐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하고 좋은 방송이었다.

○ 제목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방송일시 : 2026. 9. 28.(월) 1TV (방송예정)

요즘 세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부모를 대상으로 ‘미쳤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웃음이나 재미를 위한 제목일 수는 있지만 공영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다른 제목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8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청원 성사 : 일일드라마 ‘육망의 땃’ 출연자 관련.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324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558	322	-	-	444	1,324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532	588	24	-	4	176	1,324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422	902	-	1,324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26	1	60	137	1,324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가요무대」 - 편성 호평 【시사·교양】 ○ 「동물의 왕국」 - 방송 제언 ○ 「인간극장」 - 자막 제언 【연예·오락】 ○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 방송 호평 ○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 방송 호평 ○ 「살림하는 남자들」 - 출연자 호평 【드라마】 ○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 제목 제언 ○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 - 방송 호평 【라디오】 ○ 「KBS 열린토론」 - 진행자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참기름·생들기름’ 연락처 문의 73건 ○ 「2TV 생생정보」 - ‘복어 한 상’ 연락처 문의 35건 ○ 「동네 한 바퀴」 - ‘맷돌, 오대쌀’ 연락처 문의 26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25건 ○ 「전국노래자랑」 - ‘출연자’ 문의 17건 【기 술】 ○ 「주파수」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4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6건 ○ 「주차」 문의 4건 ○ 「견학」 문의 3건 ○ 「수신료」 문의 1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37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호평	○ 「가요무대」(2명) - 2026. 9. 5.(토) 1TV (08:30-09:25) (재) - 토요일 오전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어 좋다. 본방송이 오후 10시에 방송되어 늦은 시간이라 잘 시청하지 못했는데, 토요일 오전에 재방송을 해주니 편하게 볼 수 있어 좋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시간대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 · 교양]	
방송 제언	○ 「동물의 왕국」(1명) - 2026. 9. 3.(목) 1TV (17:30-18:00) - 중복되는 장면이 너무 많다. 특히 초반에는 전날 방송과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와 전날 방송을 다시 틀어준 줄 알았다.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니 화가 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자막 제언	○ 「인간극장」(2명) - 2026. 9. 4.(금) 1TV (07:50-08:25) - 경상북도 영천시가 자막에 ‘경산북도 영천시’로 잘못 표기되었다. 많은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는 지역명 표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극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빠르게 시정되기를 바라며 의견을 전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연 예 · 오 략]	
방송 호평	○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명) - 2026. 9. 4.(금) 2TV (20:30-22:10) - 출연자들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파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다. 때 묻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과 감동을 함께 전해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방송 호평	○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1명) - 2026. 9. 4.(금) 2TV (22:20-24:00) -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50대 남성이다. 젊은 층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요무대」와는 달리, 중년층이 즐길 수 있어서 좋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정통 음악 프로그램이 오래도록 방송되었으면 한다. ※의견제시자 : 스**
출연자 호평	○ 「살림하는 남자들」 (220명) - 2026. 9. 5.(토) 2TV (21:30-22:50) - 박서진 씨가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노인 분장을 하고 하루를 체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부모님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이 떠올랐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하고 좋은 방송이었다. ※의견제시자 : 임** 외

의견	세부내용
[드라마]	
제목 제언	○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2명) - 2026. 9. 28.(월) 1TV (방송예정) - 요즘 세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부모를 대상으로 ‘미쳤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웃음이나 재미를 위한 제목일 수는 있지만 공영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다른 제목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호평	○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 (1명) - 2TV (토-일) (20:00-21:20) -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 하석진 씨와 안희연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연기를 잘해서 더 좋다. 주말이 기다려진다. ※의견제시자 : 익명
[라디오]	
진행자 제언	○ 「KBS 열린토론」 (2명) - 1R (월-금) (19:20-20:30) - 황현희 씨의 진행에서는 전문성과 깊이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아 아쉽다.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해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 주었으면 한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